# 특색있는 들쭉가공품들을 더 많이

공화국의 삼지연들쭉음료공장에서 생산한 음료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가고있다.

공장에서는 이 지방의 이름난 특산물중의 하나인 백두산들쭉을 가지고 각종 음료와 가공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문헌에는 들쭉은 갑산지방의것이 이름났는데 민간에서는 《들죽》이라고 부르며 딸기처럼 꿀에 재워 먹는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이 지방의 들쭉은 그 맛이 독특하여 정과를 만드는데서 으뜸이라고 하였다.

들쭉나무는 백두산일대의 높은 지대에 무리를 지어 많이 자라고있으며 백무고원일대와 황수원일대, 금강산의 비로봉 등 높은 산지대에도 퍼져있다.

들쭉은 보혈강장제와 청량제로서 리용가치가 큰것으로 하여 들쭉으로 시원한 단물이나 단묵, 정과 등과 같은 식품을 만들어 생활에 리용하였다.

백두산들쭉에는 당분과 단백질, 조지방, 펙틴 등이 들어있어 청량음료나 당과류생산의 원료로 리용되고있으며 들쭉에 들어있는 안토시안은 질좋은 천연색소로 쓰이고있다고 한다.

또한 사람의 몸에 좋은 약성분들과 비타민C를 비롯한 여러가지 비타민이 들어있어 기침약, 설사멎이약, 지혈제로 쓰이고있으며 홍역을 앓고난 어린이들과 해산후 녀성들의 건강회복에 좋은 약재로 쓰이고있다.

백두산들쭉을 정상적으로 먹으면 피가 맑아지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을 미리 막을수 있고 치료에도 대단히 좋다고 한다.

최근 삼지연들쭉음료공장에서 조업당시에 비해 생산능력을 1.5배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장에서는 당화기를 자체의 기술로 개조하고 모든 공정들에 도입하여 생산능력을 높이였으며 생산과정에 나오는 증기를 제거할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현장작업조건과 환경을 보다 개선하고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들쭉음료작업반에서는 자체로 들쭉단졸임생산공정에 교질분쇄기를 제작설치하여 산열매의 고유한 맛과 색을 잘 살리면서도 가공품의 질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였으며 무균화실현에서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공무작업반의 기능공들도 려과공정을 개건하여 원단위소비기준을 극력 낮추고 많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훨씬 높이였다.

본사기자 황금숙

# 다양한 정보봉사활동 활발히 진행

전민학습의 대전당인 인민대학습당과 과학기술전당에서 다양한 정보봉사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인민대학습당에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바지할 360만건의 자료들을 홈페지에 새로 보충하고 국가망을 통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적극화하고있다.

학습당에서는 방대한 자료들을 수자화하는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는 한편 현실적조건에 맞게 원격주문봉사를 개선하여 해당 부문과 단위들에서 요구하는 과학기술자료들을 신속히 보급하고있다.

또한 이미 확립된 실시간대화형체계에 의한 원격강의를 실속있게 짜고드는것과 함께 최근에는 수십개의 원격재교육을 위한 과목을 완성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근 2배에 달하는 전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현지에서 원격재교육을 받고있다.

과학기술전당에서는 종합정보봉사체계와 각급 과학기술보급거점들을 위한 자료열람체계를 부단히 갱신하고 정보봉사의 질을 더욱 높여 다기능화된 과학기술보급의 중심기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고있다.

각이한 분야의 그 어떤 자료도 마음대로 열람할수 있는 이곳의 정보봉사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날로 높아가는 속에 홈페지리용자수는 지난 시기보다 일평균 2만명이나 더 늘어났다.

전당에서는 홈페지리용자들의 검색 및 열람과 학습에 편리한 기능을 과학기술보급실망체계에 실현하여 올해에만도 700여개 단위에 5만 2 000여건의 가치있는 자료들을 봉사하였다.

전민학습의 대전당들에서 봉사하고있는 과학기술자료들은 온 나라 근로자들이 선진과학기술들을 습득하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는데서 은을 내고있다.

본사기자

# 금강산의 상팔담

상팔담은 금강산의 외금강 구룡폭포우에 있는 8개의 큰 담소를 통털어 부르는 이름이다.

상팔담이 있는 골짜기의 량쪽비탈면은 해발 100m의 깎아지른 벼랑으로 되여있으며 여기에는 소나무, 잣나무, 단풍나무 등이 바위짬에 뿌리를 박고 자란다.

이 나무들이 마치 허공에 드리운듯 한 모양새로 주위의 담소와 벼랑 등과 어울려 신비스러울 정도로 그 경치가 아름답다.

흠 한점 없는 깨끗한 통바위로 되여있는 여기에는 오랜 세월 물에 깎이여 생긴 8개의 둥그런 담소들이 한줄로 놓여있다.

수정같이 맑은 물은 이 담소들에 차례로 흘러들었다가 다시 빠지면서 누운폭포 등을 이루고있다.

산의 밑뿌리를 감돌아 흐르는 이 물줄기는 마치 파란 구슬을 꿰여놓은 진귀한 목걸이와도 같다.

상팔담이 하도 경치가 아름답고 물이 맑아 8명의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하고 올라갔다는 유명한 《금강산팔선녀》전설도 전해지고있다.

천연기념물 제219호로 지정되여있는 상팔담은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 사람이 가지고있는 7가지 지능

자료에 의하면 인간은 서로 독립적인 7가지 지능을 가지고있다고 한다.

례를 들어 한사람이 어떤 측면에서는 지능발휘능력이 약할수 있지만 사람들이 주의를 돌리지 않는 다른 측면에서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질수 있다고 한다.

지능은 각이한 형태로 표현되는데 자기의 장점을 적극 살려 장점으로 약점을 메꾼다면 매 개인은 자기의 재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첫째로**, 언어능력이다. 이것은 문자의 뜻에 대해서와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의 결합에 대한 민감성이다.

**둘째로**, 론리 및 추리능력이다. 즉 련쇄적인 추리능력과 방식 및 순서의 식별능력이다.

**셋째로**, 음악능력이다. 이것은 음질, 선률, 박자, 음조에 대한 민감성이다.

**넷째로**, 체육활동능력이다. 즉 몸을 민첩하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능력과 물체를 조종하는 능력이다.

**다섯째로**, 인간관계능력이다. 다시말하여 인간을 리해하고 인간관계를 잘 가지는 능력이다.

**여섯째로**, 공간에 대한 감각능력이다. 이것은 세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세계의 어느 한 공간을 개조하는 능력이다.

**일곱째로**, 심리적 사색능력이다. 말하자면 생활을 인식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리해하는 능력이다.

본사기자

약효가 뛰여난 산나물음식

### 참나물김치

미나리과의 여러해살이풀인 참나물은 깊은 산골짜기의 나무숲속에서 자란다.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참나물을 봄에 많이 채취하여 식생활에 즐겨 리용하였는데 국을 끓이거나 김치를 담그어먹었다.

참나물은 강장, 아픔멎이, 혈압낮춤, 진정, 항알레르기, 오줌내기, 강심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몸안에서의 물질대사가 마지막까지 진행되게 함으로써 채 분해되지 못한 대사중간산물이 몸안에 축적되여 피로가 오는것을 막아주고 회복작용도 한다.

입맛이 떨어져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향긋하면서도 독특한 맛을 내는 참나물김치는 입맛을 돋구어준다.

참나물김치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참나물을 깨끗이 다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물에 씻고 따로 마늘은 다진다.

참나물에 파, 마늘, 소금, 고추가루를 두고 버무려서 단지에 담근후에 5시간쯤 지나서 김치국물을 해붓고 꼭 봉하여 익힌다.

### 도라지생나물

도라지과의 여러해살이식물인 도라지는 양지바른 산기슭 또는 깊은 산에서 자라며 널리 재배되고있다.

도라지에는 당질과 함께 여러가지 비타민, 광물질, 음식물섬유소가 많이 포함되여있다.

도라지에는 또한 약효성을 나타내는 사포닌, 이눌린, 피토스테롤 등이 들어있다.

사포닌은 목안과 입안의 점막을 자극하는 결과 기관지의 반사적인 분비항진을 일으켜 가래를 묽게 하여 쉽게 내보내게 하며 기침을 멈춘다.

도라지생나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라지는 찢어서 소금에 비벼 씻어 우리고 파와 마늘은 다진다.

도라지에 고추가루와 참깨기름을 두고 고루 무쳐 색갈을 낸 다음에 식초, 사탕가루, 파, 마늘, 소금, 간장, 깨를 두고 고루 섞는다.

본사기자

# 왜 양력에 윤년이 있는가

현재 세계적으로 쓰이고있는 양력은 고대로마시기에 쓰이던 《율리우스력》에 근거하여 만든것이다.

천문학에서는 지구가 태양주위를 춘분점으로부터 춘분점까지 도는 시간간격을 회귀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은 365.2422일이다.

그러나 율리우스력의 한 해는 평균 365.25일로서 매해 1회귀년보다 약 11분 4초 길다.

이것이 B.C.46년부터 16세기까지 축적되여 10일이상 오차가 생겼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리13세가 력을 고치는 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그 결과 1582년 10월 5일을 10월 15일로 정하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오차가 다시 루적되는것을 막기 위하여 윤년을 쓰는 새 규칙을 만들어 서력년도에서 4로 완전히 나누이는 해를 윤년으로 하였다.

그러나 100으로 나누이는 해는 4로 나누어지지만 윤년이 아니며 400으로 나누어지는 해는 윤년이라고 정하였다.

실례로 1980년은 4로 완전히 나누어지므로 윤년이다. 1900년은 100으로 나누어지는 해이므로 비록 4로 나누어지지만 400으로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윤년이 아니다.

윤년에는 2월에 하루를 보태여 한해가 366일로 된다.

이렇게 정한 력의 1년의 평균길이는 365.2425가 되여 회귀년에 가까와지며 3 000년이 되여야 하루 차이난다.

본사기자

## 민족회화계의 재사들과 그 유산

# 리상좌와 그의 작품

리상좌(조선봉건왕조시기의 화가)는 노비의 신분을 타고났지만 뛰여난 그림재주로 하여 노비신분에서 벗어나 도화서의 화원으로 되였다.

그는 주로 인물화를 많이 그렸지만 산수화와 동물화, 화조화, 삽화 등 여러 종류의 그림들을 다 잘 그렸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달밤에 소나무밑을 거닐며》, 《성난 범》, 《꽃과 새》 등이 전해지고있다.

힘있는 필치와 강한 기백, 날카로운 극성을 띤 형상으로 굳센 의지와 항거의 분위기를 강조한것은 리상좌의 작품에서 볼수 있는 독특한 창작경향이였다.

《달밤에 소나무밑을 거닐며》는 리상좌의 그러한 창작적개성과 화풍을 보여주는 대표작의 하나이다.

가파로운 벼랑의 바위틈에 뿌리박은 소나무가 줄기와 가지를 뻗쳐 거연히 서있으며 그아래로 한 늙은이가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고있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시달려온 소나무는 마디마디 구불었으나 휘몰아치는 역풍을 맞받아 꿋꿋이 서있으며 그 아래 인물들도 세찬 바람에 옷자락을 날리면서도 멈춤없이 걸음을 다그치고있다.

바람세차고 어둑침침한 밤경치를 그렸지만 스산하거나 불안한 느낌은 거의 없으며 세월의 풍상고초와 온갖 시련을 다 이겨내는 강의한 의지와 굳센 기상, 불굴의 기개가 강하게 안겨오는 작품이다.

《성난 범》을 비롯한 그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박력있는 형상을 통하여 강한 기개가 잘 나타나고있다.

당대에 그의 격동적인 화풍을 따를만 한 화가는 없었다고 한다.

리상좌의 작품들은 당시 화단을 지배하고있던 고루하고 형식주의적인 화풍에서 벗어나려는 화가의 지향을 보여주고있다.

그의 화법들은 조선화발전과 그 연구에서 귀중한 자료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달밤에 소나무밑을 거닐며》(리상좌 작)

사화

# 우연한 기적 (3)

글 권영희, 그림 채대성

김진사는 다시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워버렸다.

그는 돈 삼천냥만 잃은셈이 되였다.

신부의 집에서도 큰 소동이 일어났다.

속은것이 분하고 패씸하기도 하거니와 딸에게 흠이 생긴것이 절통하였다.

딸은 아버지에게 초례지낸 신랑을 찾아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렇게 하는것이 두집안창피도 면하고 또 자기가 응당 취해야 할 길이라고 똑똑히 말했다.

딸의 말이 사리가 정연하므로 부모도 어쩌는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신랑을 찾기로 하였다.

어설픈짓을 하고 맹랑한 처지에 이른것은 김진사네였다.

며느리는 얻지도 못하고 돈 잃고 창피당하였으나 누구에게 하소할 일도 못되였던것이다.

김진사집 사람들은 모두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였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하면장네 부자도 걱정이 많았다.

눈앞에 닥친 급한 불은 껐으나 김진사네 청을 들어주는것으로 신세갚음하자던것이 일이 뜻대로 안되고보니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

더우기 송씨집에서는 김진사 아들대신 왔던 신랑이 하면장 아들이라는것을 알아내여 강경한 항의를 들이댔다.

경우가 경우니만치 어쩔수가 없었다.

잔치는 이미 치렀으니 이제 신부를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셈이였다.

만일 김진사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기결혼공모자로 될것이라 순욱은 어쩌는수없이 신부집요구대로 그 신부에게 장가들게 되였다.

이 사연을 알게 된 순욱이의 누이동생 순희가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을 단정히 꿇고 말했다.

《아버지! 소녀가 무엇을 알겠습니까마는 듣자오니 이번 일에 우리나 송씨댁에서는 그저 잠간 창피를 보신것뿐이오나 김진사어른이 제일 딱하고 가엾습니다. 그 어른의 돈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 집이 어떻게 되였겠습니까. 그 어른이 우리 집을 살려주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오리까. 그런데 이제 우리 집 형편은 폈고 또 그 댁 부탁도 들어준셈이라고 물러앉는다면 도리가 아닐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남의 비난을 받게 되며 하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것입니다.》

《듣고보니 네 말이 옳다마는 아무리 생각해야 도와줄 방도가 없지 않느냐?》

《아버지, 김진사어른은 며느리를 맞으시면 되겠지요?》

《그야 그렇지.》

《그럼 소녀가 그 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에 하면장은 화닥닥 놀라며 《뭐야! 네가 문등이 계집이 되겠다는거냐?》 하고 딸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순희는 굽히지 않고 정색하여 말하였다.

《아버지, 사람이 의리를 모른다면 어찌 옳은 일이라 하겠습니까.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신의가 밝은 나라라고 아버지는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댁에서 우리를 사지에서 구원해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 이 딸자식 하나 없는셈치시고 저를 그 댁으로 보내십시오. 그래야 아버지는 의리를 아는 사람으로 되십니다. 또 그러시지 않고서야 마음이 괴로와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딸의 그 말을 듣고 하면장은 고개를 푹 수그리며 한숨을 내쉬였다.

…

김진사는 하면장이 자기 딸을 며느리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너무도 고맙고 또 의리있는 그의 행동에 감동되여 눈물까지 흘리였다.

어제까지도 죽은듯 고요하던 김진사네 집은 갑자기 활기를 띠였다.

김진사일가는 웃음꽃이 활짝 핀 가운데 하면장의 딸 순희를 며느리로 맞아들였다.

김진사의 그늘졌던 얼굴이 환해지고 주름살들도 펴이는 듯싶었다.

그는 자진하여 들어온 며느리가 너무도 귀하여 더없이 아끼고 사랑하였다.

남편 경환이 또한 만족해하며 잠시도 순희가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의 병은 순희가 들어온지 석달째 잡히자부터 더 중해져서 모든것을 단념하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데까지 이르렀다.

약도, 순희의 지극한 정성도 다 소용이 없었다.

종처가 차마 볼수 없을 정도로 흉하게 된 경환이의 방에는 누구나 들어가기를 꺼려하였다.

그러나 오직 순희만은 잠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를 간호하였다.

유모아

# 갸륵한 마음씨

옛날에 큰 짐을 지고 농촌길을 가던 로인이 지나가는 마차에 올라탔다.

등짐을 계속 지고 앉아있는 로인에게 마부는 《할아버지, 그 짐은 마차우에다 내려놓으시지요. 무거우시겠는데.》라고 했다.

그러자 로인은 대답했다.

《아니, 내가 탄것만 해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려놓아서야… 말이 불쌍하지.》

주소 :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